www.neuro.or.kr

대한신경과학회보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09 September 2008

2008. 9 • Vol. **78**

2008년도
원로간담회를 다녀와서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칭)
창립을 준비하면서

2008년도
통합학술대회 안내

각 위원회별 활동

지부 동정

대한신경과학회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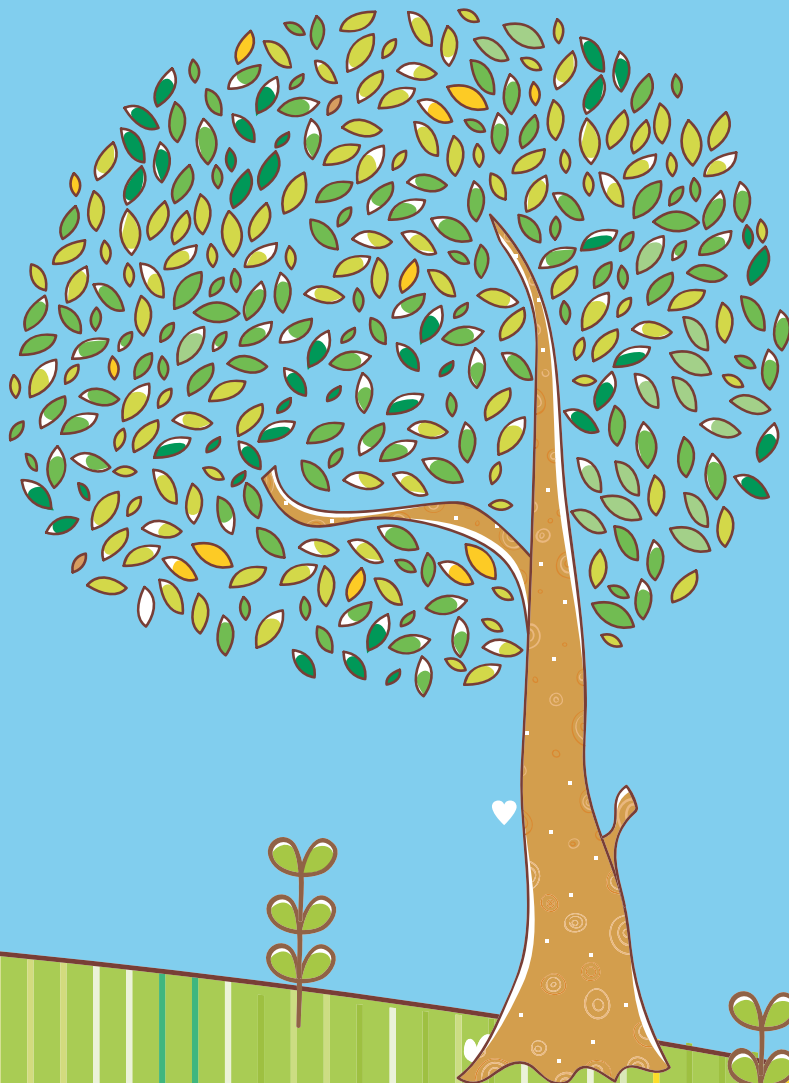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2008

+ 대한신경과학회 임원명단

회 장	이광호(성균관의대)
부회장	하정상(영남의대)
부회장	이창훈(이창훈신경내과의원)
이사장	이광우(서울의대)
부이사장	김주한(한양의대)
총무이사	박성호(서울의대)
보험이사	김영인(가톨릭의대)
재무이사	김지수(서울의대)
편집이사	허지회(연세의대)
홍보이사	박수철(연세의대)
고시이사	윤병우(서울의대)
학술이사	김승현(한양의대)
기획이사	전범석(서울의대)
수련이사	박기덕(이화의대)
정보이사	성기범(순천향의대)
법제이사	박건우(고려의대)
국제이사	한설희(건국의대)
무임소이사	김재우(동아의대)
무임소이사	조기현(전남의대)
무임소이사	김재문(충남의대)
무임소이사	안재훈(신구의원)
감 사	정대수(부산의대)
감 사	권오상(중앙의대)
용어위원장	이상암(울산의대)
노인의료위원장	서정규(경북의대)
간 사	조진환(서울의대)



대한신경과학회보

NO.78 2008.SEPTEMBER

대한신경과학회 사무실 및 회의실

Contents

2008년도 원로간담회를 다녀와서

이 상 복 |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04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칭) 창립을 준비하면서 06

고 임 석 | 국립의료원 신경과 / 서 정 규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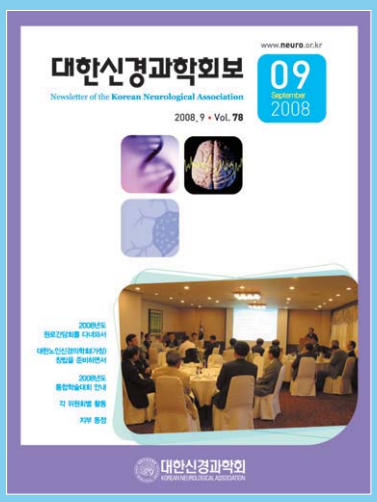
2008년도 통합학술대회 안내 09

각 위원회별 활동 10

지부동정 13

알림란 15

회원 동정 17



cover story :
학회 발전을 위한 원로간담회사진

발행인 | 이 광 우
편집인 | 박 성 호
발행처 | 대한신경과학회
주 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1층 11호
전 화 | (02)737-6530 **팩 스** | (02)737-6531 **이메일** | kna@neuro.or.kr **홈페이지** | www.neuro.or.kr
디자인·인쇄 | 도서출판 씨아이알(02)2275-8603
발행일 | 2008. 9. 30.

2008년도 원로 간담회를 다녀와서

글 이 상 복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지난 9월 6일 저녁 대한신경과학회 초청으로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학회의 전 학회장과 이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들면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같은 이광우 이사장의 각별한 배려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1982년에 학회를 창립한 후 지금까지 회장 22명, 이사장 9명이 역임하셨고 그 중에 3명은 벌써 작고하셨으며, 지금 생존해 계신 분 중에서도 박충서, 김기환 선생님 등 여러분을 제외하고 14명만이 참석 하였다. 참석한 전회장과 전이사장 중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건배 제의도 하고, 몇 마디 회고담도 하면서 흐뭇한 저녁을 보냈다.

며칠 전 학회로부터 "2008년도 원로 간담회를 다녀와서"라는 제목으로 학회 회보에 A4 용지 두 장 정도의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늦게나마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 회보에 글을 쓰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1984년 4월 본인이 학회장을 하고 있을 때, 이 회보를 새로 만들면서 그 첫머리에 "창간사"를 쓴 것이다. 창간사에서 나는 회원간의 학문적 토론은 물론, 국내외의 신경과학계 동향과 우리 학회 및 회원소식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알려드리려고 학회 회보를 창간한다고 창간취지를 말하고, 우리 학회의 출발이 늦은 만큼 다른 학회보다 더욱 분발하고 남보다 갑절의 노력을 하여 선진제국의 신경과학회와 발을 맞출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하루빨리 그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희망을 말한 바 있다. 그러한 마당에 본 학회 회보가 국내 신경과 학계의 학문적 동향과 그 밖의 사정을 신속 · 정확 그리고 풍부하게 알려드려 회원간의 학문적 발전과 일상 진료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하며 회원 상호간 대화의 광장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무궁한 발전을 하자고 제안하였었다.

창간사를 쓴 지 24년 만에 대한신경과학회보에 짤막한 글을 쓰자니 감개가 무량하다. 그 당시 300여 명의 회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427명이나 되고, 그 당시 전임회장 1명뿐이던 것이 지금은 역대 회장, 이사장 합해서 23명이나 된다. 학회가 창립된 후 국문으로 된 학회지는 꾸준히 발간되어 이제 26권 3호를 내었고 2005년 4월부터는 영문학회지인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도 발간되어 현재 그 영문학회지는 SCI-E에 등재까지 되었다. 내년 7월에는 아세아·오세아니아 임상신경생리학회가, 내후년에는 세계뇌졸중학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있다. 이제, 우리 대한신경과학회는 세계 속의 신경과학회로 발전하여 세계 속에 당당히 서 있다.

대한신경과학회가 탄생한 지 26년 만에 우리 학회는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십여 년의 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1972년에는 신경과라는 임상과가 의과대학이나, 병원에 없었고, 신경과 전문의 양성도 할 수 없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신경과학교실이 생겼고 신경과의 전문의 훈련은 신경정신과나 내과에서 일부 인원을 할애 받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것이 10년이 지난 1982년 신경과 전문의 제도가 생기고 학회가 설립되면서 한국의 신경학은 본 궤도에 올랐던 것이다. 한국 신경학의 탄생 전후를 지켜본 본인으로서는 정말 감회가 새롭다. 그날 모인 다른 원로들도 여러 가지 회고담과 앞으로의 학회의 발전방향에 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웠다. 우리 신경학은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치매, 뇌졸중 등 노년신경학의 비중이 커지고, 분자생물학의 발달과 유전자조작의 활성화로 불치병으로 여겨오던 유전성 신경질환과 변성질환의 치료에도 희망이 보인다. 뇌과학의 눈부신 발단은 신경학이 임상의 증상을 기술하는 기술과학의 틀을 벗어나 신경질환의 발병기전을 밝혀나가는 설명과학으로 탈바꿈하고 컴퓨터, 인공지능 그 밖의 생명공학과 연계하면서, 종래 생각하던 의학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의 본질규명에 큰 역할을 하는 학문으로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큰 전환기의 신경학을 이끌고 갈 우리 대한신경과학회는 회원간의 활발한 정보교환과 학문토론의 장으로서 본 회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오래 되지 않은 우리 대한신경과학회를 크게 발전시켜 세계 속의 주목받는 신경과학회로 그리고, 머지않아 세계 신경과학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학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소위 "원로"들도 한몫을 단단히 하여야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만 이 글을 줄인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칭) 창립을 준비하면서

2009년 초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칭) 창립을 목표로 2008년 여름 노인의료위원회를 중심으로 taskforce팀(고성범, 고임석, 김상윤, 박건우, 배희준, 서정규, 이광수, 이병철, 이준홍, 한일우, 황성희)을 구성하였다. 이미 많은 노인관련학회가 있음에도 신경과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노인학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2004년 노인의료위원회를 구성한 후부터 현재 대한노인신경의학회의 창립을 준비하기까지의 시간을 돌이켜 본다.

글 고 임 석 (국립의료원 신경과) / 서 정 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 교실)

2008년 늦여름 이광우 이사장의 요청으로 특별한 모임이 개최되었다. 서정규(노인의료위원장), 김주한(부이사장), 박성호(총무이사), 이광수, 김상윤, 한일우, 박건우, 황성희, 배희준, 이준홍, 고성범, 고임석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모임은 노인의료에 있어 가장 중심인 신경과(이런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물론 심지어 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도 잘 모르고 있지만)의 위상과 역할을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정부의 노인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칭)의 창립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이 회의에서 노인신경의학회의 구성과 역할, 향후 창립까지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창립의 배경, 즉 필요성에 대한 논의였다. 이미 국내에는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노인의학회 등을 비롯하여 특정 과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와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까지 있으므로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역시 또 하나의 노인학회에 불과하다는 냉철한 자기 비판도 있었고, 노인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신경과는 이미 노인의료의 중심이 되는 과인데 굳이 새로운 노인학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급격히 진행하는 노령화 사회와 이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부의 노인 관련 보건정책 속에서 향후 노인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경과 중심의 노인관련학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신경과학회 산하 기구인 노인의료위원회의 첫 모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상황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2004년 정부에서 공적노인요양보험(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노인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현실과 괴리된 의료보험이 시행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고, 비슷한 시기에 각종 노인관련학회가 난립하면서 제각기 노인병 인정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노인의학관련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시 기구를 만들게 되었다. 그 후 구체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2005년부터 상설 기구인 노인의료위원회로 탈바꿈하였으며 이광호 교수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광호 교수와 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책 회의와 시범사업은 물론 요양보험에 사용될 의사소견서 작성과 이에 대한 의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업무를 맡아 활동하였다. 의사소견서 및 교육 준비를 위한 의협의 taskforce팀(의협 임원진과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의사로 구성)에 들어갔던 필자는 치매에 관계된 항목은 당연히 정신과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다른 위원들의 태도에 씁쓸했던 기억도 있지만 결국 의

사소견서의 거의 모든 항목이 신경과에서 만든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또 당시 2차 시범사업까지도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한의사가 최종적인 3차 사업부터 갑작스럽게 의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참가하는 것을 보고 정치력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현재에도 필자는 의협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책위원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요양심판위원, 심평원의 요양병원적정성평가위원 등으로 여전히 노인정책에 관련된 외부 업무를 맡고 있으나, 2004년 국립병원에 근무한다는 명분으로 대한신경과학회 비상대책위원을 맡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종합병원 신경과 의사들처럼 노인정책이나 노인학회에는 큰 관심이 없었으며, 노인학회에서 노인병 인정의를 만든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노인 환자와 노인성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신경과가 노인의료에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만 4년간 대한신경과학회의 노인정책에 관한 대외 업무를 맡으면서 많은 복지부 직원들과 접촉하고 의사협회에서 다른 노인관련학회나 노인병원협의회의 인사들을 만나게 되면서 신경과 의사가 노인의료의 중심이라는 자신감은 본인만의 착각인 듯하다는 회의감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느낌을 절실히 가지게 되었다.

첫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노인 보건에 관련된 정부 정책 및 노인관련학회나 활동에 대한 신경과 의사의 철저한 무관심(특히 수련병원 의사들의 경우)이며, 둘째로는 외부에서 신경과 의사를 보는 시각들 – 왜 신경과가 노인의료의 중심이냐? 뇌졸중은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볼 수도 있고 치매는 정신과에서 보면 되고 등등의 이야기와 파킨슨병만은 신경과에서 보는 게 적절한 것 같다는 어느 복지부 직원의 말을 들었을 때의 착잡함, 심지어는 신경과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는 황당한 질문들까지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일반 국민들이 아닌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정책이나 보험급여에 관계된 실무자들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담당하다니"라는 느낌을 가졌으나, 정책 당국을 비롯한 심평원까지도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각 과의 역할을 홍보하고 처방권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주야로 노력하는 다른 진료과들을 볼 때면 정책 관계자들이 신경과를 과소 평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신경과가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학문적으로나 진료 실적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얼마 전까지도 대부분의 신경과 의사들이 대학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원에서 능력 있는 진료과로, 의사로 인정받고 있는 탓에 굳이 외부에 신경을 쓰거나 정책 관계자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노인의료위원회는 요양보험에 대한 활동 외에 신경과 의사의 낮병동(주간보호센터) 및 전문 물리치료(작업치료)에 관한 처방권을 얻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처방권에 대해 필자도 처음에는 대다수의 수련병원 신경과 의사들처럼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나 낮병동의 경우는 개원을 하고 있는 신경식, 이지영 원장의 열의에 의해서, 작업치료는 노인병원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 접하게 되었으며 놀라웠던 사실은 낮병동의 경우는 정신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는 재활의학과는 물론 10년 전부터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도 처방권을 획득하였으나 신경과만 제외되어 있다는 현실이었다. 특히 작업치료의 경우는 필자가 만났던 복지부 직원들도 신경과에 처방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왜 신경과만 처방권이 없냐고 되물어와 필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10년 전에 작업치료 처방권한을 얻지 못했던 것은 현재 요양병원건강보험(포괄수가제)이 시행되면서 신경과 의사의 역할과 권한을 줄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인 어떤 선생님이 말하듯 신경과에서 낮병동이나 작업치료에 대한 처방권을 원한다면 충분한 학술적 배경을 포함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고 이에 대해 적어도 수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정책 담당자들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처방권의 당위성을 알려야만 될 것이라는 충고가 절실하게 느껴졌다. 이런 상황들을 접하며 필자는 대학병원, 수련병원에 있는 신경과 의사들이 그동안 현 상황에서 만족하고 외부로 적극적으로 뻗어나가기보다는 마치 알 속에 있는 것처럼 내부에만 안주했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필자는 신경과가 정말 노인의료를 주로 담당하는 과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해답을 얻기 위해 작년 가을 개최된 노인의료위원회 간담회에서 "노인의료와 신경과의 역할"이라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신경과가 과연 노인 환자를 주로 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보았다. 다행히 국립의료원을 비롯하여 무작위적으로 조사한 5~6군데 종합병원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신경과는 다른 과에 비해 노인 환자의 비중이 단연 높았고, 주로 다루는 질환 역시 잘 알려져 있는 노인성 질환들이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병원 전체 진료 환자 추이와 비교하여 신경과 환자는 외래, 입원 모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만성적인 노인 환자를 담당하는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수도 다른 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경과가 노인 진료에 있어서 중심적인 과임은 객관적인 지표로 알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이와 같은 신경과의 역할을 외부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알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간담회 이후 노인의료에서 신경과의 정확한 위상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몇 군데의 병원이 아닌 국내 신경과 전체의 노인 진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노인의료에 관한 신경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 중에 있다.

위에 기술한 것들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필자가 노인의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상념들을 적어 놓은 것이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창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료에서 신경과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일례로 금년 7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뇌졸중 환자에 비해 치매 환자가 1~3등급을 받은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도 탈락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정부에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자문을 치매를 담당하는 학회(물론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으로)인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맡겼으며, 이와 같이 많은 정부 정책들은 "노인"이 붙어있는 학회에서 자문을 얻고 있으며, "노인"학회들은 노인 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가 집단으로 간주하여 정책 회의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노인관련 학회에서 인정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물론 현 시점에서는 노인병 인정의가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미래를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경과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힘을 모을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대한신경과학회가 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나 대한신경과학회는 노인의료 부문뿐만 아니라 신경과 전체의 문제와 학술적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료에 대한 특화되고 학술적인 부분보다는 정책 참여나 외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지금까지 노인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학문적 부분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이룰 수 있는 신경과 중심의 노인학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수련병원, 봉직의, 개업의를 포함한 모든 신경과 의사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탁 말씀 : 이번 대한신경과학회 학술대회 첫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칭)의 창립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였으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제27차 통합학술대회 안내

2008년 10월 9일에서 10월 12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제27차 대한신경과학회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통합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새로이 변화된 내용을 회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글 김 승 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1. 통합학술대회의 주제
Unification & Globalization

대한신경과학회는 통합을 위하여 학회 기간 중 별도의 자리를 배정하여 신경과관련 세부학회의 홍보부스를 설치할 예정이고,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4일간의 학회 기간 중 네 분의 국내외 주요 연자를 초빙하여 plenary lecture를 하고 한국과 일본의 학술 교류의 장으로 Korea-Japan Joint symposium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plenary lecture와 Korea-Japan Joint symposium의 연자와 강의제목입니다.

▶Plenary lecture

- Plenary Lecture I – Prof. Shin J Oh, Musk Ab positive MG
- Plenary Lecture II – Prof. Seung-Schik Yoo, Neurology in 2020
- Plenary Lecture III – Prof. Mony de Leon, The advance in diagnosis of AD
- Plenary Lecture IV – Prof. J-S. Suh, MR molecular imaging

▶Korea-Japan Joint symposium

- Gene therapy for Parkinson's disease – Prof. Shinichi Muramatu
- Genetics of Parkinson's disease in Korea – Prof. Yun J Kim
- Diagnosis and physiology of ALS – Prof. Hiroyuki Nodera
- Stem cell therapy as the potential new neuroprotective therapy of ALS – Prof. Seung H Kim

2. 심포지엄의 구성

4일간의 학술대회 기간 중 강의계획에 맞추어 세부분야와 최신 의학분야를 종합한 강의를 Morning Lecture, Parallel Symposium, Plenary Lecture, Satellite Symposium, International Symposium, Evening Symposium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구연 및 포스터 발표

구연은 일반구연, 전공의구연, 영어구연의 3가지 형태로 진행합니다. 일반구연은 신경과학의 각분야 별로 총 13개의 세션으로 구성합니다. 전공의구연은 전공의 회원의 발표기회를 늘리고, 학술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총 6개의 독립된 구연 발표 세션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통합학술대회의 주제인 Globalization에 맞추어 영어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포스터는 3일에 걸쳐 총 462편이 발표되며 포스터 발표의 활성화를 위하여 10개의 포스터 당 1인의 좌장을 두어 진행합니다.

4. Closing ceremony & highlighted oral and poster presentation

학회 마지막 날인 10월12일에 학술대회 기간에 주목 받은 연구 발표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학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7편의 구연과 15편의 포스터로 총 32편의 highlighted presentation 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

● 고시위원회

1. 고시 워크숍(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 2008년 6월 5일(목요일) 오후 2:30~6:30(고시위원회 회의: 오후 1:00~2:00)
-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 및 제1회의실

– 수련병원 과장 또는 조교수 이상을 대상으로 대한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시험문제 개발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하였습니다.

2. 상반기 고시문제 출제를 의뢰하였습니다.
– 고시 1차(객관식, 주관식, R-type) 문제 출제의뢰

3. 2008년도 하계 문제은행정리작업을 하였습니다.
- 일 시 : 2007년 7월 2일(수)~2005년 7월 4일(금)
- 장 소 : 양평 한화콘도
- 참석자 : 윤병우(위원장), 강사윤, 김병건, 김종민, 박건우, 서대원, 손성일, 오건세, 윤영철, 이동국, 정기영, 정진상, 최성혜, 성정준(간사) (14명)

4. 대한신경과학회 제2차 고시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8년 7월 3일(목)
- 장 소 : 양평 한화콘도
- 참석자 : 윤병우, 박건우, 서대원, 오건세, 이동국, 정진상, 성정준 (7명)
- 토의 사항:

1) 주관식 20문항(0.8점), 객관식 120문항(0.7점, 객관식 120문항 중 6문항은 R-type)으로 결정함
2) 표준화 환자 워크숍(9월 6일)을 위한 taskforce team 구성
3) 2009년도 전문의 고시출제계획서 확정(첨부 출제계획서 참조, 10% 내에서 변동 출제 가능함)

5. 52회 신경과 고시CPX 문제개발 TFT 1차 회의
- 일 시 : 2008년 8월 21일(목) 오후 6:30
- 워크숍 준비, TFT 위원 보강 등 논의

6. 의협 고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일 시 : 2008. 9. 2. 07:00
- 52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출제계획서 공표 및 확정
- 객관식 : 120문항(1문항 0.7점)
- 주관식 : 20문항(1문항 0.8점)
- 객관식 120문항 중 6문항은 R-type
- 시험 계획
- 응시원서 접수: 2008. 10. 27~10. 31
- 1차 시험(필기 시험): 2009. 1. 8(목) 10:00
- 1차 시험합격자 발표: 2009. 1. 15(목) 14:00
- 2차 시험(실기 및 구술)" 2009. 1. 16(금)~2. 7(토) (학회별 별도 공지)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2009. 2. 12(목) 14:00

7. 고시위원회 표준화환자 워크숍과 모의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 시 : 2008년 9월 6일(토)
- 장 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강의실(모의시험: MDL 실험실)
- 52회 수험생을 대상으로 CPX의 소개와 시험방법을 설명하고 모의시험을 실시하였음.

● 보험위원회

1. 신경과 관련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에 회신하였음.
- 리큅피디정, 아리셉트에비스정, 엘다임오디정 건강보험요양급여여부 결정. 신청약제에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회신하였음.
- 소마지나정 의견 요청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회신하였음.
- pregabalin 경구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변경 개정 고시(안) 의사협회에 회신하였음.
- 의사 업무량 개정서식(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

2. 뇌파검사 의견 요청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회신하였음.
- 경련중첩증에서 지속적 뇌파검사가 필수적인 검사이며 Video EEG monitering, 두개강외(64채널미만) 수가항목을 이용한다. midazolam, pentobarbital, propofol 등의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제사용을 중단하고 3일까지 뇌파검사를 실시한다. 상기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일 이내에 뇌파검사를 실시한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길랑바레증후군에서의 IVIG적용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 준비 중임

4. "신경학적 척도검사(운동질환척도)-기타"관련 행위정의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 행위정의 요청하여 신경과 상대가치점수 활용도를 높일 예정임.

5.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같은 계통 약제 중복 처방 시 삭감"관련 학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준비 할 예정임

6. 대한신경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보험위원회 주최로 "보험삭감 어떻게 방지하나?"에 대한 특별강연(evening symposium)이 있으며, 보험삭감 방지요령을 제시할 예정임.

일 시	내 용
18:00 – 18: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보험 삭감 관련 주의 사항 이광수 교수(가톨릭대강남성모병원)
18:30 – 18:50	보험업무에 필요한 변화 된 양식 안내 민양기 교수(한림대한강성심병원)
18:50 – 19:10	개원가에서 주의 하여야 할 보험 관련업무 한병인 원장(두신경과)
19:10 – 19:30	신상대가치점수 등 현재 우리의 보험 상황 김영인 교수(보험이사)

● 용어위원회

1.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 5집 개정안에 대한 신경과 의견 제출하였음.

2. 대한신경과학회지 원고의 용어를 교정하면서, 신경과 용어집을 보완 수정 중임.

● 정보위원회

1. 학회 홈페이지 개편

2. 학회 초록집과 강의 슬라이드 업로드 중임

3. 홈페이지 11월 초 Open 예정임

● 총무위원회

1. 자학회 신청 공문 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고 신청접수 중임. 현재 대한수면연구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탈수초질환연구회, 대한근신경질환학회, 대한신경-혈관집중치료학회의 접수를 받았음.

2. vCJD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상윤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음.

3. 학회사무실을 확장하였음.

4. 학술대회 주후원사 간담회 실시하였음(2008.7.2)

5. 2009년도 통합학술대회 일정이 국제회의(WCN) 등의 문제로 변경될 예정임.
   – 변경 전 2009. 10. 29. ~ 11. 1. (워커-힐)
   – 변경 후 2009. 11. 19. ~ 21. (워커-힐)

6. 역대 회장 이사장을 모시고 원로간담회 개최하였음(2008. 9. 6. 오후 6시 프레지던트호텔).

7. 학회에서 기획하여 진행 중인 "신경과 개원의 신경과 교육" 프로그램은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기존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8. 의료일원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전범석 교수)를 설치하여 현행 한방진료의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 편집위원회

1.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인정
   – JCN이 SCIE에 등재하면서 학술진흥재단에 2008년 6월 등재후보 학술지가 되었습니다.

2. JCN KoreaMed 등재
   –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로부터 2008년 7월 17일 등재 공문을 받았습니다.

3. JCN 논문투고 홈페이지 개설
   – 2008년 8월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논문 투고 및 수정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4. JCN 홈페이지 open 예정

5. JCN 종설 초록 모집 – 21편 접수 및 심사

6. JCN의 표지 변경 – 4권 3호(9월호)부터 새로운 표지로 교체합니다.

7. 학술대회 Satellite Symposium
   • 일 시 : 2008년 10월 10일(금) 12:30-13:20
   • 장 소 : BEXCO APEC HALL(205)
   • 주 제 : 연구 윤리
   • 좌 장 : 김지수 교수 (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대한신경과학회 국문편집위원장)
   • 강 사 : 홍성태 교수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8. 학술대회 편집위원회 주관 Evening Symposium
   • 일 시 : 10월 11일(토) 18:00– 19:30

• 장 소 : BEXCO (101+106)
• 주 제 : SCI 잡지에 accpet 되는 노하우와 reject 되는 지름길
• 좌 장 : 허지회(연세의대, 편집이사)
• 강 의 : 강동화(울산의대), 방오영(성균관의대)
• panel : 김종성, 나덕렬, 이명식, 김지수

9. 전공의 우수논문상 선정 – 학술대회 총회에서 시상 예정

10. JCN citation

• JCN이 SCI에 등재되었습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Impact factor를 받게 됩니다. Impact factor는 2007년과 2008년에 JCN에 게재한 논문이 2009년 한 해 동안 SCI 잡지에서 몇 번 인용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2007년과 2008년 동안 JCN에 개재한 논문 편수가 70편이고, 2009년 한 해 동안 SCI 잡지에 인용한 JCN 논문 편수(2007년과 2008년)가 70편이면 impact factor 가 1.00이 됩니다.

• 처음 받게 되는 impact factor가 JCN의 앞날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회에서는 회원들의 citation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itation 해주시는 회원들께도 그 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께서 SCI 논문을 내실 때 2007년과 2008년 JCN 에 실렸던 논문을 한번 확인하시고 관계가 있는 논문은 꼭 citation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홍보위원회

1. 제2차 홍보위원회 workshop이 2008년 9월 6일과 7일 1박 2일 일정으로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개최되었음.

2. 1차 홍보 workshop 참여자 및 각 연관학회 홍보이사가 참여하여 기존 8개의 홍보 소책자를 개정 및 보완하고 통증 및 간질을 새로이 추가하였음.

3. 추계통합학술대회에서 기존과 개정 및 새로이 추가된 홍보물을 전시함과 동시에 “신경과를 어떻게 홍보할까”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신경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홍보물을 발간할 예정임.

지부 동정

강원지부

회 장 배재천 (배재천신경과의원)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7년
- 회원수 30명
- 장·단기계획 장기계획은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연 3회의 학술대회 개최와 인적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간단한 소개 강원도 신경과 친목도모 및 최신 신경과학 경향을 습득하기 위한 모임.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대한신경과학회 강원지회 학술 심포지엄
- 주제 두통의 발생기전/간질중첩증
  환자의 MRI 소견
- 일시 2008년 10월 25일(토)
- 장소 강원랜드 (정선)
- 주최 춘천성심병원 신경과

광주전남지부

회 장 손의주 (광주상무병원)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2006년
- 회원수 58명
- 장·단기계획 1) 전남 광주지역 회원간 친목도모 (친목행사개최 연 2회) 2) 학술행사를 통한 학문적 교류(일년 4회 계획중)
- 간단한 소개 2006년 3월 25일 창립되었고 창립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 신경과 회원간의 단합과 서로의 학문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음.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대한신경과학회 광주전남지회 2008년도 제3차 학술대회
- 주제 치매의 최신지견
- 일시 2008년 9월 27일
- 장소 순천 메디팜 요양병원
- 주최 대한신경과학회 광주전남지부

※ 학술대회는 1년에 4회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지부

회 장 임정근 (계명의대)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3년 1월
- 회원수 139명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 장·단기계획 지역사회의 신경학 분야 의료를 담당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학회가 된다. 신경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집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회원간의 교류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신장시킨다.
- 간단한 소개 대구경북지역의 신경학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연 4회 집담회를 하고 있다.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대한신경과학회 대구 경북지회 학술집담회
- 주제 강의와 증례토론
- 일시 분기별 1회

※ 모든 회원들이 집담회에 참석하여 학술토론과 회원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남지부

회 장 김상호 (동아의대)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2년도
- 회원수 200여 명
- 장·단기계획 대학병원 위주의 모임에서 봉직의와 개원의가 함께 동참하는 모임으로 운영하고, 기존의 연평균 6회 정도의 신경과 지회 모임(주로 마지막주 화요일)을 없애고, 연 4회 정도의 학술대회 및 집담회를 계획하여 시행할 예정임. 회원간의 상호친목과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예정
- 간단한 소개 2008년도 신임 이사진 명단-회장 : 동아의대 김상호, 감사 : 인제의대 김응규, 학술이사 : 경상의대 박기종, 총무이사 : 동아의대 박경원, 기획이사 : 봉생병원 임용빈, 홍보이사 : 나상옥 신경과의원 나상옥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대한신경과학회 부산경남지부 학술집담회
- 주제 강의 및 사례발표
- 일시 분기별 1회
- 장소 주최에 따라 변경

영호남지부

회 장 조기현 (전남의대)
이사장 정대수 (부산의대)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85년
- 회원수 약 400명
- 장 · 단기계획 지속적으로 심포지엄을 1년에 두 번씩 개최하여 중요한 신경학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와 토의를 통한 전공의 교육과 학문적 교류에 힘쓸 것이며,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한 친목회를 유지할 계획이다.
- 간단한 소개 1985년 창립 이래로 매년 4-6회의 정기적인 학술집담회를 가졌는데 임상신경학 분야의 최신 지견에 대한 강의와 증례 토의를 통하여 신경학의 이해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996년 이후에는 학술집담회를 심포지엄으로 전환하여 1년에 두 번씩 개최하고 있으며 중요한 신경학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와 토의를 갖고 있다. 학술집담회를 통한 학술적 교류 외에 회원들의 경조사에 마음을 같이하고 있으며 1년에 1차례, 학술집담회를 마치고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한 친목회를 갖고 있다.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2008년 대한신경과 영호남학회 추계학술대회
- 주제 Recent update in neurology
- 일시 2008년 10월 25일, 26일
- 장소 전라남도 여수
- 주최 대한신경과 영호남학회

중부지부

회 장 오건세 (을지의대)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 회원수
- 장 · 단기계획 충청남북도, 대전지역 신경과 회원의 학문 발전과 친목을 도모한다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대한신경과학회 중부지부 학술집담회
- 주제 증례발표
- 일시 2008년 9월 30일
- 장소 건양대병원 대강당
- 주최 대한신경과학회 중부지부

호남지부

회 장 김진호 (조선의대)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5년
- 회원수 86명
- 장 · 단기계획 신경과학회 회원의 권익과 친목도모 및 신경과학회의 연구발전,그리고 신경계질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 간단한 소개 1995년 12월 14일 창립한 본 지회는 2년의 임기로 회장, 총무, 학술, 감사 의 임원진을 두고 연 4회의 학술집담회를 매년 가져 왔다. 학술집담회는 4개의 의과대학을 번갈아가며 초청강연과 흥미로운 증례토의를 하는 모임으로 되어 있으며 임원임기 2년 중 1회의 학술집담회를 열고 있다.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대한신경과학회 호남지부 송년모임
- 주제 강의 및 사례발표
- 일시 2008년 12월 5일
- 장소 조선대학교 의대 의성관 김동국홀
- 주최 대한신경과학회 호남지부

알 림 란

1. 대한신경과학회 자학회 신청현황

■ 2008년 9월 현재까지 대한신경과학회에 자학회 신청서를 제출한 학회/연구회는 대한수면연구학회(회장 : 홍승봉),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회장 : 김주한), 대한탈수초질환연구회(회장 : 이광호), 대한근신경질환학회(회장 : 김승민), 대한신경-혈관집중치료학회(회장 : 이병인) 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이사회는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정한 자학회 인준기준에 부합되어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준을 위해 평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대한신경과학회 회의실 오픈

■ 학회 창립 초기에는 학회사무실을 회장 또는 이사장이 재직하는 신경과학교실에서 운영하다가 학회 규모가 커지면서 1997년 8월 김명호 이사장 재직 시 종로구 관철동 평구빌딩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구입하려는 논의를 시작하여 최일생 이사장 재직 시인 1999년 3월에 사무실을 구입하여 인사동 대일빌딩 1007호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 1월 선우일남 이사장 재직 시 사무실 한 칸(1111, 1112호)을 더 늘려 확장 정착하였습니다.
2008년 3월부터 연관학회와 각 위원회의 회의가 잦아지면서 사무실을 마련하려는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8년 6월부터 학회사무실 바로 옆의 1113호를 임대하여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마련 후 주 2~3회 가량 연관학회와 각 위원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사용할 연관학회와 위원회는 최소 2주 전에 문의(Tel 02-737-6530)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한신경과학회회보 내용 신설

■ 다음 회보부터는 대학(교실)탐방, 원로회원 탐방, 인물탐방의 새로운 세션을 신설하여 보다 흥미있고 유익한 회보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4. 두(頭)신경과의원 개원

■ 개원일 2008, 4, 15

- 주소 : (700-440)대구시 중구 남산동 925-2번지 (중앙대로 637번지) 반월 메디칼 타워 11층 (반월당 역 21번 출구)
- 전화 : 053-252-2225, 팩스:053-289-6502
- 외국인 상담 (영어) : 053-474-6502
- 메일 : han-byungin@hanmail.net
  byung_in@hotmail.com

- 의원소개 : 두신경과는 신경과 영역이 주로 머리의 질환을 다루기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 신경과 질환들은 대부분 건전한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발병했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두 신경과는 대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같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비용을 무릅쓰고 고성능의 검사장비들을 비치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들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영어 전용 전화번호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진료과목은 두통의 근육치료, 전정재활치료, 이명습관화치료 등입니다.

알 림 란

5. 신경학교과서 우수학술도서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신경학'을 2008년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학술도서 선정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으로, '신경학'은 자연과학 선정 도서 중 의학 및 약학 도서 6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신경학' 교과서를 각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6. 화제의 서적

■ **잠자는 CEO, 당신의 앞쪽뇌를 깨워라 앞쪽형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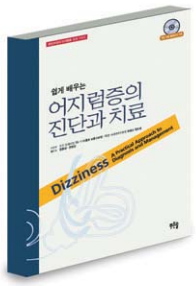
'뇌를 만지는 사람' 나덕렬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 출판사 : 허원미디어
• 가 격 : 14,000원

저자 나덕렬 교수는, 우리들의 우수한 두뇌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 중 1부는 환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 앞쪽뇌의 기능을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저자가 1995년도 삼성서울병원 기억장애클리닉(치매클리닉)을 개설한 이래 직접 경험했던 우리나라 앞쪽뇌 손상 환자들의 이야기를 첨삭 없이 그대로 소개하는 생생한 경험담 형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도만 다를 뿐 모두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환자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2부에서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앞쪽뇌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쪽뇌 손상 환자분들이 보이는 증상을 교훈 삼아 앞쪽뇌를 향상시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뇌는 변한다'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희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과의사이면서 뇌과학자인 저자는 이렇게 중요한 앞쪽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앞쪽형인간은 어떤 것일까?'를 고심하며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적고 있습니다.

■ **쉽게 배우는 어지럼증의 진단과 치료**

이 책은 돌발성 체위성 현기증, 전정신경염, 편두통성 현기증, 메니에르병, 일과성 뇌허혈증 및 뇌졸중,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 말초신경병증, 약물 유발성 현기증, 심인성 현기증, 차멀미 등을 진단 치료하는데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책의 장점은 어지럼증의 진단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증상 지향적이라 해당 장만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별진단 표와 CD를 활요하면 실전에 유용하며 감별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게 합니다.



• 제 목 : 쉽게 배우는 어지럼증의 진단과 치료
• 저 자 : 아돌포 브론스타인, 토머스 렘퍼트
• 역 자 : 임준성, 한병인
• 판 형 : 4×6배판 변형
• 면 수 : 280쪽
• 가 격 : 48,000원 (CD 포함)

회원동정 경조사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김경집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친상	2008년 6월 10일
김희태	한양대병원	부친상	2008년 6월 13일
이상봉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부친상	2008년 7월 20일
최원준	해외연수	부친상	2008년 9월 6일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수현	가천의대길병원	축결혼	2008년 11월 1일
노지훈	고려대병원	축결혼	2008년 5월 17일
박강	제주대병원	축결혼	2008년 7월 5일
박상준	가천의대길병원	축결혼	2008년 11월 1일
성영희	가천의대길병원	축결혼	2008년 10월 19일
엄관희	서울대병원	축결혼	2008년 9월 6일
이서영	강원대병원	축결혼	2008년 6월 26일
정은지	계명대동산병원	축결혼	2008년 6월 14일

The safest & first choice

Reduction rate of hemorrhagic risk (vs ASA)

TIM Study[1] 33% ⬇
TACIP Study[2] 53% ⬇
TAPIRSS Study[3] 66% ⬇

혈전증 치료제

Disgren®

Dual mechanism
- Total PAF inhibitor
  (COX 1, ADP, EP, collagen)
- Increase of cAMP

Additional effect
- NO increase
- Neuroprotection

혈전증 예방 및 치료의 뛰어난 효과!

- TxA_2 억제 및 c-AMP 증가로 우수한 항혈전효과를 나타냅니다.
- NF-kB 억제로 neuroprotection 작용을 나타냅니다.
- NO에 의한 혈관 확장 및 심장보호 효과를 나타냅니다.
- ASA와 비교시 출혈성 합병증이 없어 장기간 복용시 안전합니다.
- 혈액계 부작용, 간독성, 두통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References
1) J.M Cruz-Fernández et al. Eur Heart J 2000;21:457-465 2) Matias-Guiu et al. Stroke. 2003;34:840-848
3) A. Culebras et al. Neurology 2004;62:1073-1080

좋은 치료제, 넘치는 건강
명인제약(주)
www.myunginph.co.kr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대한신경과학회보

NO.78 2008.SEPTEMBER

발행인 | 이 광 우
편집인 | 박 성 호
발행처 | 대한신경과학회
주 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1층 11호
전 화 | (02)737-6530 **팩 스** | (02)737-6531 **이메일** | kna@neuro.or.kr **홈페이지** | www.neuro.or.kr
디자인·인쇄 | 도서출판 씨아이알 | (02)2275-8603
발행일 | 2008. 9. 30.